

제 173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일본 현대미술에 나타난 서브컬처의 영향

강연자: 정신영 (鄭新永) (서울대학교 강사)

서울대학교의 김지영 교수의 세미나가 6월 7일 국제대학원 GL 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일본 현대미술에 나타난 서브컬처의 영향'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정신영 교수는 일본의 미술계에서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타카시, 나라 요시토모, 아이다 마코토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에서 나타난 서브컬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술계에서는 뉴욕의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무라카미 타카시와 나라 요시토모는 현재 뉴욕에서 각각 Gagosian gallery와 Pace Wildenstein Gallery에 소속되어 있다. 반면, 아이다 마코토의 경우 뉴욕보다는 일본에 개인의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일본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작가이므로 정신영 교수는 이 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브컬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라카미 타카시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이 만화나 캐릭터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그는 뉴욕에서의 성공을 위해 오타쿠 문화에 주목하게 되고 이것을 본인의 미술에 도입시켜 피규어를 제작하게 되었다. 오타쿠 문화는 주로 2차원창작이지만 이것을 피규어로 제작함으로써 3차원으로 입체물로 만들어내는데,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2차원이었을 때는 주목되지 않았던 점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1996년 뉴욕에서의 첫 전시를 통해 '히로뽕'이라는 캐릭터를 선보였는데 이 전시를 계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무라카미 타카시의 작품들은 일본을 소개하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2005년 뉴욕 Little Boy 전시에서 고질라와 도라에몽과 같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예술작품과 같이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브컬처를 통해 전쟁에 관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등 전쟁의 기억과 패배, 세기말적 폐허 이미지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서구적 원근을 배제하며 오타쿠 문화에 대한 찬미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서구미술에 도전하는 전략이 보인다고 정신영 교수는 설명하였다.

두 번째 작가인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들은 대부분 머리는 크지만 몸은 작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녀의 이미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의 세대가 애니메이션과 같은 서브컬처를 접한 기회가 많았고 이러한 서브컬처의 주인공들이 소녀들이었다는 것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정신영 교수는 분석하였다. 서브컬처에 있어서의 소녀는 미성숙한 이미지를 통해 보호본능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성인 남성의 구매욕을 높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아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성적으로는 성숙해진 네오테니의 현상이 일본의 현대 미술과 유사하드는 것도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다 마코토의 경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작품, 여성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작품, 또한 전쟁에 희생자를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 '건담'의 캐릭터로 하는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주로 서브컬처를 통해 일본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들쳐내었다.

정신영 교수는 주류 문화를 벗어난 비주류 문화의 범람은 우리 모두가 같은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보고 자라왔고 또한 전문문화와 고급문화가 크게 성장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질의응답

질문: 서브컬처를 통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본사회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 또한 이 세 작가가 지적하는 일본사회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답변: 최근에는 오타쿠 문화와 같은 것이 일본사회의 특징이다. 일본 전통 미술은 아직 존재하지만 유통시장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브컬처를 통한 붐을 기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일본이 지금 문화적 대외적 수출은 주목 받을 만한 것들은 이러한 서브컬처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일본인들은 매체를 통해서 전쟁을 접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색채를 투입하려는 것도 보인다. 또한 스스로에게 주어진 과제로서 전쟁을 끊임없이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 작가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언급의 필요성을 다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지금 무라카미와 나라는 미국에서 미술로 인정받았는데 강연자는 한국에서 미술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그들의 작품들이 정말 아름다운지 미학적으로 판단하면 어떠한가?

답변: 쉽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나라의 작품을 통해 눈물을 흘리거나 힐링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작품은 꼭 힐링과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라카미의 경우 생산력과 매니지먼트의 능력은 감탄할 만한 하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였지만 아름다움으로 연결시키면 아니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수미술과는 벗어난 것은 확실하다.